

# “한강 작가 북카페 조성 중단·부지 매각 모색해야”

설계 재능기부 이후 예산 감액 지연  
사업 초기 부지 매입 단계부터 논란  
예비비 4억8천만원 들어 졸속 추진  
시의회 “무책임·탁상행정 전형 사례”

광주시가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작가의 생가 인근에 북카페를 조성하는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과 관련, 광주시의회가 사업 중단과 부지 매각을 포함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제3회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은 예비비를 통한 부지 매입, 재능기부 설계, 사업 정체성 문제 등이 복합

적으로 드러난 만큼 사업을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은 ‘책 읽는 광주 만들기’를 위한 인문도시 광주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초 광주시는 사업비 17억3천만원을 투입해 북구 중흥동 일원에 부지 148㎡, 연면적 238㎡ 규모의 북카페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 1회 추경에서 공사비가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은 “광주시는 올해 본 예산에 설계비 1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불과 18일 뒤 민간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 재능기부 제안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해당 예산을 1회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전일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사업비’로 전용하려다 집행하지 못한 채 정리추경에서 뒤늦게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재능기부 확정 이후에도 예산을 장기간 존치한 것은 세출관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내부의 예산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전문위원실은 “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인근 부지를 예비비 4억8천만원을 들여 급하게 매입해 사업을 강행했다”며 “예비비는 긴급한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전 계획 없이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사업의 상징성과 입지 적정성 측면에서 타당성 부족, 재정 운용 절차 적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특히 설계까지 재능기부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공공건축사업으로서 매우 이례적으로 예산 편성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고 민간 건축사의 설계 의도에 사업 구조가 종

속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올해 본예산 심의 당시 시의회는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을 위한 시민 공유공간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가의 동기가 필요하고 재능기부를 전제로 한 공사인 만큼 추가 예산 편성은 안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으나, 광주시가 1회 추경에 공사비 10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해 제출하면서 전액 삭감한바 있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은 “의회 보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며 시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이라며 “사업 지속 여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하며 이미 매입한 부지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할 때 보존이나 활용보다는 매각 검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정체성 측면에서도 한강 작가의 문학적 상징을 구현한다는 취지와 달리, 설계가 재능기

부 건축사의 미적 의도에 과도하게 의존해 상징성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위원실은 “이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체장의 방침에 따라 졸속 추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무책임 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사업 추진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기존 북카페 조성 계획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려둔 상황이지만 시가 별도로 추진 중인 ‘인문학 산책길 조성사업’의 루트 중 하나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소설 속 주요 공간을 따라가는 인문학 산책길 코스에 거점으로 포함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민의 통일 의지·역량을 집결하고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전남지역회의가 지난 19일 전남도청에서 출범한 가운데 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항구적 평화 체제로” 22기 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 출범

최병상 부의장 취임

전남도는 20일 “전날 도청에서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전남지역회의 출범대회가 신임 부의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행사는 개회식, 자문위원 선서, 최병상 전남지역회의의 부의장 등 간부위원 소개, 제22기 활동 방향 및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자문위원의 비전과 다짐, 대북·통일 정책 특별강연, 통일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최병상 전남지역회의의 부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통일은 막연한 이상이 아닌 평화, 경제, 공동

성장을 위한 현실적 목표”라며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넓히고 휴전 협정을 항구적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길은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자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미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영상 축하사에서 “국민주권 시대, 평화통일의 담론을 이끄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전남지역회의의 출범대회를 축하드린다”며 “APEC 이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지금이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협력의 모멘텀을 만들 때다. 그 길을 여는데 제22기 전남지역회의의 자문위원들께서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

속 통일자문기구로 국내의 2만2천8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남지역회의의 소속 자문위원은 1천364명으로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10월31일까지 2년

간이다. 평화통일 토론회, 지역 통일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도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고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양시원 기자

### 광주보건환경연구원, 2027년까지 건강기능식품 11종 품질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일 “오는 2027년까지 ‘유통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품질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는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C, 키토산, 무기질,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건강기능식품 11종류가 대상이다.

연구원은 각 건강기능식품의 지표성분 함량 등이 법적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부적합 판정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 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회수·폐기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변은진 기자



### AI·모빌리티 유망기업 초청

#### 광주경제자유구역 팜투어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9일 인공지능(AI)·모빌리티 유망기업들을 광주로 초청해 ‘2025년 하반기 광주경제자유구역 팜투어’를 진행했다. <사진>

이번 팜투어는 지역 주요 산업·문화시설을 소개해 ‘미래 투자처’ 광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팜투어 참여 기업은 현대합성공업㈜, 장덕금속㈜, 보성열처리㈜, 한국핵사금㈜, ㈜프리세 등 5개 기업이다.

이들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첨단3지구(AI융복합지구), 광주과학기술원 슈퍼컴퓨센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GAMA),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등을 방문했다.

참여 기업들은 미래산업 생태계를 직접 살펴 보면서 광주의 투자 매력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기업들과 지속 소통해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자 기업들이 광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하늘아래 단 하나의 터

##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법당형 봉안당 시스템** 해원정사 VIP추모원은

- 1 편리한 접근성**  
광주광역시 동구 분산동에 위치하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2 명품안치단**  
극락전 VIP안치단은 고인이 유골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더 넓고 화려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 3 극락전VIP추모관**  
내부에서 골고루 자연채광이 되도록 설계 하였고, 한온·한습시스템으로 고인을 쾌적하게 모십니다.
- 4 해원정사 추모원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
  - 매년 가을에 추모산사음악회 개최
  - 해원정사 추모원을 모시는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스님께서 매일 기도를 해드립니다.
  - 매월 음력18일 지장재일과 백중, 구정, 추석 등 매년 15회 합동제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 추모관은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보안은 5중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프리미엄 봉안당 지금 준비가 가장 현명  
10년후면 더 비싸집니다. 봉안당은 부동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미리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 VIP 가격표 (관리비별도) |                   |
|-----------------|-------------------|
| 개인 단            | 400백만원 ~          |
| 부부 단            | 800백만원 ~ 2,400백만원 |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광주광역시 동구 분산길 100  
www.haewonjungsas.com 대표전화 | 062-234-4576

잊지 못할 순간, 캐논으로 완성하다

## 지금이 캐논 타이밍

### 2025 캐논 정품등록 프로모션

**이벤트 대상 제품을 구매하시고 정품등록 후 이벤트 응모 및 승인 완료된 모든 고객님의 100% 사은품 증정!**

|                 |                                     |
|-----------------|-------------------------------------|
| 제품 구매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 2025년 12월 31일(수) |
|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 2026년 1월 7일(수)   |

|                |                |                     |                                 |
|----------------|----------------|---------------------|---------------------------------|
| <b>납품 전문업체</b> | <b>캐논스토어</b>   | <b>062)522-2000</b>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
|                | <b>캐논코리아총판</b> | <b>062)350-8397</b> |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로 54 (금호월드1층 139호) |